

평가위원들이 선거 당시 공약과 당선 후 작성한 이행계획서 내용의 일치도를 통해 공약준수의 성실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1년차 평가라는 점을 고려 정책의 효과나 주민만족도 등의 평가는 배제하고 공약이행도 평가와 공약일치 여부만을 점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육동일 원장은 정용덕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 지방자치학회, 지역경제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충북대 소순창 교수, 배재대 김욱 교수 등 55명과 함께 이번 평가에 참여했다.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산업경제연구부에서는 지난 5월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대통령직속 FTA국내대책위원회 주관으로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대전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이 각각 수행중인 「한미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연구」 용역 잠정결과를 중심으로 한미FTA의 지역별 맞춤형 영향분석과 지역별 논의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미FTA가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한 산업경제연구부 김기희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체결로 대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개방분야를 중심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제조업 부문에서는 대전의 산업생산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지만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인프라와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 입지 등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효과로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서비스부분도 주로 내수위주의 산업구조로 편성되어 있어 큰 피해가 예상되지 않고, 오히려 금융·법률 등 기업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예상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초등학생 실물경제 체험교육」 실시



대전경제교육센터(센터장 김기희 책임연구원)에서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소속 초등학생 어린이 200여명을 대상으로 1회 50명씩 총 4회에 걸쳐 실물경제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체험교육은 어린이들에게 실물경제시장의 체험교육을 통해 합리적 소비행위와 경제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번 행사는 대전역 근방 재래시장과 지하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가격비교체험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주어진 자금을 가지고

구입희망 상품을 구입해 보는 체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전경제교육센터는 이후 올해 하반기 및 내년에도 본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 소속 초등학생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반 초등학생들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충청지역혁신대장정 2007」 개최



대전·충북·충남의 3개 광역시도와 3개 지역혁신협의회가 공동(행사주관: 대전지역혁신협의회 임성복 사무국장)으로 「충청지역혁신대장정 2007」 행사를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개최하였다.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3개 시·도 연구원, 지역혁신연구회, 전국 관련학회, 전략산업기획단 및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등이 참여하여 8개의 컨퍼런스가 성대하게 진행되었고, 전시행사 및 문화 이벤트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대덕특구지원본부에서 개최된 성공사례 발표회에서는 3개 시도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사업기관으로 선정된 7개 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전시행사는 지역혁신관, 연구지원기관, 대학·산학협력관으로 구분, 25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대전 가족공동체포럼」 개최

여성정책연구부는 지난 7월 3일 대전시 가족 공동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자치단체 및 사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3차 대전 가족공동체포럼을 개최하였다. 지난 3월 5일 개최된 대전 가족공동체 실천을 위한 세미나 “이제는 가족입니다”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은 4월, 15인의 준비모임을 거쳐,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조찬형식을 빌어 가족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있다.

6월 중 개최된 2차 포럼에서는 결혼이주 가정(다문화가정)의 현실과 정책적 제언에 대한 발표와 활발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으며, 3차 포럼에서는 (사)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의 사무국장인 김윤경의 주제 발표로 “장애인 가족 지원의 필요성과 방향”이 논의되었는데, 대전 지역의 장애인 가정의 현황에 대한 토의와 함께 장애인 가정 내에서 가족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신적, 심리·정서적 문제들 및 가족 개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여성정책연구부는 8월 중 대전가족공동체 포럼 준비위원들과 함께 포럼 중간 점검과 하반기 계획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9월 4일 열릴 제4차 포럼에서는 대전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 측의 주제 발표로 “가정과 보육정책 및 관련시설의 현황과 개선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포럼에서 발표·논의한 내용은 대전광역시의 가족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대전가족공동체포럼 관련 자료는 대전발전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djdi.re.kr>)에서 볼 수 있고, 문의사항 및 참석 신청은 대전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부 (042-471-5696) 으로 할 수 있다.



「대전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자문 회의」 개최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4년도부터 온실가스 관련연구를 진행하여 온 정환도 박사가 지난 7월 6일 우리연구원 회의실에서 「지역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퍼포먼스평가」에 관한 기본과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역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툴(TOOL) 개발이라는 실용적 측면과 기본과제의 질적 향상이라는 내실성 강화의 필요성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그 동안 시리즈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전시 대응방향(2004. 12), 지역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2006. 12)에 대한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현재 진행중인 지역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평가연구(2007. 11예정)와 관련하여 지역온실가스 저감의 퍼포먼스에 대한 시험론적 툴(TOOL)을 논의하였다.

한편, 이러한 지역온실가스 저감의 퍼포먼스에 대한 시험론적 논의에 대한 자문회의는 지구온난화와 관련하여 에너지원 등의 저감대안 제시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에서 개최되어, 우리시의 향후 지구온난화 환경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산업경제연구부의 김태헌 박사는 과학기술부와 KISTEP이 주관하는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19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지자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8월 30일 대전 베스트 웨스트 레전드호텔에서 개최된 중부권(대전-충남-충북-강원도) 워크숍에 참가하는 등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계획에 참여하였다.

「2007년도 하계 대전·충청권 중·고등학교 교사 경제연수」 실시



대전경제교육센터(센터장 김기희 책임연구원)에서는 지난 7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간 대전·충청권 중·고등학교 교사 42명을 대상으로 사학연금회관에서 하계 경제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중·고등학교 경제교육관련 교사들에게 경제수업에 활용가

능한 실천형 연수를 통해 교사의 경제교육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연수는 지난 2006년 하계연수를 시발점으로 3회째 실시되었으며, 향후 매 학기 방학을 이용하여 교사들에게 경제교과 교수방법론 등의 교육을 통해 교사의 경제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교육방법 개선할 목적으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어린이 경제페스티벌」 개최

대전경제교육센터(센터장 김기희 책임연구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난 7월 30일 꿈돌이랜드에서 재정경제부와 대전광역시, 꿈돌이랜드 등의 후원으로 어린이들의 합리적 소비행위와 경제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해 지역 아동센터 소속 어린이 800여명을 초청하여 「어린이 경제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19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가 참여하여 진행된 본 행사는 경제전시회, 경제골든벨, 경제 O×퀴즈, 경제빙고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 소비행위에 대한 기초적 소양과 경제적 사고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본 행사는 또한 다양한 경제미션을 수행하는 형태로 어린이들이 보다 흥미롭고 쉽게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물 및 수익금을 아름다운 재단의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하

는 뜻 깊은 자리였다.

한편, 꿈돌이랜드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였으며, 놀이기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후원하였으며, 충청하나은행, 재정경제부 등에서도 행사관련 경품 등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후원하였다.

대전경제교육센터에서는 향후 1년에 동계와 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저소득층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일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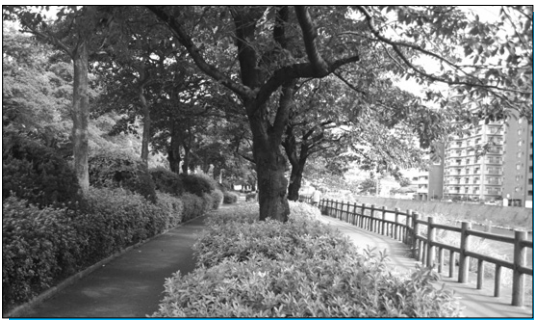
「대전대도시권의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연구」 착수

자치정책연구부의 최길수 책임연구원은 7월 대전대도시권의 지방정부간 협력방안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전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9개 자치단체의 자치역량과 권

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로간 기능적 단점의 보완과 장점의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인접자치단체(8개)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갑천문화·관광벨트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본 방문

도시교통연구부의 문경원 선임연구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8일까지 「갑천문화·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일본의 가고시마, 후쿠오카, 히로시마, 교토, 오사카, 도쿄, 삿포로 등 사례지역을 방문하였다. 특히, 가고시마 甲突川の 제방은 수변을 끼고, 숲 속에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펼쳐지는 것을 인상케 했으며, 후쿠오카시의 那珂川 제방에는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 벤치 등의 시설물, 히로시마시 京橋川 오픈 카페(River-Win)는 국토교통성의 「하천이용의 특례조치」에 따라 일본 최초로 하천 공간에 상점을 설치한 사례이다.



▲ 가고시마 甲突川



▲ 후쿠오카시의 那珂川



▲ 히로시마시 京橋川

「2007 도시개발공사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

산업경제연구부의 김태헌 책임연구원은 8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2007 고객만족도 조사」를 완료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동물원, 택지개발 및 관리, 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한편으로 도시개발공사 내부고객에 대한 직원만족도 조사도 병행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도시개발공사

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직원들의 평가 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설문결과는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하향평준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연구에서는 고객만족도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경영혁신의 정책적 마인드를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수행 예정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대전광역시로부터 「어린이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받았으며, 도시교통부 임병호 책임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이 과제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 1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며, 연구의 주요내용은 대전시 어린이 관련시설의 분포, 어린이회관 건립의 타당성 및 적지 분석 그리고 어린이회관의 적정규모 및 프로그램 등이다. 본 연구는 민선4기 시장공약사항인 “엑스포과학공원내 어린이회관 건립”과 연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대청호·금강을 활용한 공동발전 방안」 착수

자치정책연구부의 임수빈 책임연구원(공동 : 김흥태 책임연구원)은 8월 대청호금강을 활용한 공동발전 방안 연구에 착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대전과 인근 8개 시군이 참여하는 공동발전협약(G9프로젝트) 일환으로 대전(동구, 대덕구), 옥천, 보은에 접하여 있는 대청댐과 금강을 활용한 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되며, 충청권의 대청호와 금강의 환경규제와 개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활용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본 연구는 11월 완료예정이다.